

장흥군,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조성

에퀴스베스코리아 등 3개 기업
7640억원 투자, 240MW 규모
“700가구 한 달간 사용할 전력”

전라남도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조성한다.

23일 장흥군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240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에퀴스베스코리아(대표 조언우), 장흥그리드파워(대표 이해구), 대명에너지(대표 서종현) 등 3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들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조성에 76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다.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설비로, 240MWh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설은 약 7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3개 기업은 오는 7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선정되면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다.

장흥군은 향후 15년간 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출력제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 바이오 산단에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사업의 추진이 전남 서남 지역의 2035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확보 성공을 위한 이정표가



장흥군이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40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

인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건간망 어업 ‘자율 금어기’ 설정
순천시, 8월20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자 오는 8월20일까지 건간망 어업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간망 어업 금어기는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성은 없지만, 2000년대 들어 지역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휴어 기간이다.

순천시는 최근 11개 어촌계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간 설정, 수산 자원 보호 방안을 논의해 지난 20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갔다.

이 기간 어촌계에서는 어구 수거, 갯벌 정화, 수산 자원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순천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양하도록 지도한다.

건간망 어업은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둘러쳐 썰물 때 걸리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순천만 일대 해안에서는 건간망을 통해 칠게, 낙지, 돔, 송어, 쟁뚝어, 뱀장어 등이 잡힌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치유도시’ 전략 모색
영국·독일 선진 모델 적용

전라남도 순천시가 영국, 독일의 선진 모델과 연계해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 조성 등 치유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 연수단은 지난 20일 영국 런던의 사회적처방이카데미(NASP)를 방문해 순천 치유산업 전략과의 접점을 모색했다.

NASP는 자연환경, 문화예술, 신체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합적 정서·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치유 정책 기관이다.

하마드 칸 NASP 글로벌 개발 책임자는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처방은 중요한 해법이며 순천과의 협력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NASP는 향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정원, 습지, 동천, 갯벌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치유 자산을 보유한 도시”라며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을 통해 순천이 글로벌 치유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장평중학교는 5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교생 34명을 대상으로 ‘한강 작가 깊이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장평중학교 ‘한강작가 깊이 읽기’ 프로그램 성료

전교생 34명 참여

장흥장평중학교는 5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교생 34명을 대상으로 ‘한강 작가 깊이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평면사무소의 후원으로 ‘우리들의 DNA’ 저자 양인자 작가가 강사로 초청됐다.

프로그램의 중심 도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로, 이번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시대적 배경과 문학적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인자 작가는 강연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작가 한강이 그려낸 고통의 서사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토론과 글쓰기, 체험 활동을 병행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수업 일환으로 ‘전남 도청 불려 쌀기’ 활동은 작품 속 주요 배경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책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주제별 토의’ 등 다양한 독후 활동도 전개했다.

한 학생은 “혼자 읽었을 땀 너무 어렵고

무서웠던 책이었지만,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고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글로만 보던 광주의 아픔을 불러 쌀기와 편지 쓰기 활동으로 직접 생각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장흥장평중학교 국어교사는 “학생들이 어렵다고만 여겼던 문학 작품을 공감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개최…군민참여단 지속 소통



지난 19일 마산면 일원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

해 여성친화도시 구례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마약류 6종 ‘무료 익명검사’ 실시
광양시, 초기 중독 예방·재활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보건소는 전국적으로 비자발적인 마약 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3일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피해가 의심되거나, 마약류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광양 시민이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아편류),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노출 여부를 2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자가 희망하면 마약류 중독 상담센터 및 2차 검사 기관(국립나주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물 이용 범죄가 의심돼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자, 직무 또는 자격취득 관련 검사를 요구하는 자(진단서 발급용), 기존에 마약류 관련 처벌·처벌·치료를 받은 자,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 또는 질환(암)으로 인한 진통제 복용자,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정량 광양시보건소장은 “이번 검사는 마약 노출 여부를 확인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니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광양시 보건소는 지속적인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 관리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하계 청년 행정인턴’ 19명 모집
광양시, 내달 3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광양시는 2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1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청년 행정인턴 프로그램’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오는 7월10일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인턴은 오는 7월14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근무하게 된다. 광양시청과 소속 사업소 등에 배치되며, 근무부서는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다. 수행 업무는 민원 응대 및 행정 업무 보조로, 민원 안내, 서류 정리, 시설·행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및 광양청년꿈터 누리집 공고 또는 청년일자리과(061-797-2964)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수 광양시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들이 행정 인턴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길 바란다”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 청년 정책 발굴과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